

신약개발·기업공개 등 활로모색… ‘CNS 치료제’ 각축전

〈중추신경계〉

제약·바이오업계, 성장 박차

명인제약, 이달 코스피 상장
1510억 중 1085억 시설확충 투입

부광약품, 국내 20위권 도약 박차
자회사 신약개발자금 투자 계획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중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중추신경계(CNS) 치료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고, 혁신신약 개발 역량, 특정 질환에 특화된 기술력 등을 확보해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명인제약은 정신신경계 약물 시장에서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아이큐비아가 집계한 ‘국내 정신신경용제 시장 점유율 현황’에서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인제약은 뇌졸중, 파킨슨, 조현병, 우울증, 불안 등에 쓰이는 총 225종의 CNS 전문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해 왔다.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낸 생산 인프라까지 갖췄다.

명인제약의 팔탄 제1공장과 발안 제2공장은 각각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자체 원료의약품 충당 비율을 늘려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외부 의존도를 줄여 원가 및 공급망 측면에서 변동 위험성을 낮추고 수익성은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총 1510억원으로 이 중 1085억원이 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된다.

오는 2027년까지 발안 제2공장에 정제 및 캡슐 전용 고품제도를 증축한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펠렛’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의약품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술은 약물을 직경 0.5~2mm 수준의 과립구로 처방하

는 것으로, 향후 펠렛 제형 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신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팔탄 제1공장에는 주사제 제조를 위한 최신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약물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조현병 등 CNS 질환 분야에서도 약물 복용에 대한 순응도를 해소하는 등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명인제약은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한다. 올해 1월 이탈리아 바이오 제약사 뉴론과 조현병치료제 ‘아베나마이드’ 한국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계약을 맺었다. 현재 아베나마이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027년 말 발매될 수 있다.

최근 유상증자로 운영 자금을 확보한 부광약품도 CNS 질환군을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 3월 1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지난 7월 말 약 89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부광약품은 국내 20위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 콘테라파마의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지분 투자 계획을 지속 밝혀 왔다. 실제로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JM-010, 파킨슨병 환자의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 등의 파이프

라인을 확보했다. ‘CP-012’의 경우 임상 1b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달 톱라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부광약품이 지난해 8월부터 발매하기 시작한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신약 라투다정 등은 부광약품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투다정은 올해 5월 월판매 1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 국내 빅5 종합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전국 종합병원으로 원내처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후 발매 3년 차에는 국내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인 큐라클은 연달아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CU71’에 대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특허는 용도 특허에 관한 것으로, 지난 7월에는 물질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

큐라클의 ‘CU71’은 뇌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로, 혈액뇌장벽(BBB)을 안정화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억제해 준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

바메이트’는 제40호 국산 신약 후보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제품 발매까지 독자 성공한 제품이다. 뇌에서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반복적인 신경세포 발화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절차를 밟고 있고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SK바이오팜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한국·중국·일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약물 유효성이 입증돼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해당 임상에서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빈도 감소율과 안전발작소실률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산 신약 개발 성공이 경제적이거나 기업 가치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혁신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은 다각도에서 시장에 접근하며 고난도 통합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NS 치료제 시장은 복잡한 뇌 질환을 다루며 다양한 증상에 따른 병용 처방 등 환자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빅테크, 이용자·소상공인 동반자 인식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네이버 등 빅테크 CEO 간담회
소상공인 상생 등 4개 과제 제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금감원 설립 이후 빅테크 CEO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로, 빅테크 산업의 성장 방향과 사회적 책임,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IT 보안 강화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함께 참석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11일 이 원장은 네이버·카카오·토스(비바리퍼블리카)·쿠방·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CEO들에게 “빅테크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했으며, 전통 금융업 진출을 통해 금융의 경쟁 촉진에

도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이용자와 소상공인을 수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테크에 당면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이용자 중심의 경영 정착 ▲소상공인과의 상생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IT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그는 “엔슈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처음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수익성 추구가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직접 언급하며 “알고리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안전한 결제 환경 구축에 힘써 달

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돼 있다”며 “금융당국도 결제 수수료 합리화 등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판매대금 신속 정산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요구했다.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의제였다. 이 원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천만 명의 정보가 집중된 만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해 IT 보안 투자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1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CEZ 본사에서 열린 테믈린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CEZ 다니엘 베네쉬(Daniel Benes) CEO(왼쪽)와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 3000억 체코원전 수주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준공 후 15년 장기유지보수 포함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체코 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를 앞세워 체코전력공사(CEZ)와 테믈린(Temelin)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계약을 따내며 유럽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11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따르면 체코 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전력공사(CEZ)와 테믈린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발전기와 보조기기(BOP) 공급·교체 공사뿐 아니라 준공 후 15년간 장기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두산스코다파워가 주계약자로 사업을 총괄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기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계약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테믈린 원전 1·2호기(각 1125MW급)는 체코 남보헤미아주에 위치한 상업용 원전으로 CEZ가 운영하고 있다. CEZ는 최소 60년 이상 장기 운영을 목표로

원전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도 그 일환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이번 수주는 지난해 두산스코다파워에 발전기 생산 기술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성과로서 체코 에너지 산업에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제 경쟁입찰에서 확인된 ‘팀두산(Team Doosan)’의 원전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발전설비 전문 기업으로, 체코·슬로바키아·핀란드 등 3개국에 원전용 증기터빈 26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발전시장에 540기 이상의 증기터빈을 납품하며 글로벌 발전 사업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두산스코다파워의 발전기 자체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와 기술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정부, 비자문제·이민정책 적극 역할 해야”

》1면 ‘韓美 조선 협력…’서 계속

‘기술 집약형 산업’인 조선업 특성상 숙련 인력 파견 없이는 현지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선박 설계 변경, 신기술 적용, 품질 검사 등은 현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국 본사 기술자와 관리자의 투입이 사실상 전제된다.

한화오션은 현재 필라델피아 조선소

에 50여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했다. 이들 모두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를 정식 발급받아 근무 중이지만 추가 인력이 필요해질 경우 비자 제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으로의 필요 비자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기업들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인력 양성과 한국 숙련공 투입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와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어 정부가 비자 문제와 이민 정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근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인 E-4 신설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단순히 전문 인력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근로자 파견까지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지 인력은 제조업 숙련도가 낮고 임금이 높은 만큼 보완 없이는 프로젝트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